고용노동부	보도자료	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10. 1.(수) 15:00 (2025. 10. 2.(목) 조간)

장애인이 "성장"하고 "존중"받는 일터를 위해

노동부 장관, 장애인 노동자 고용 현장 방문

- **장애인 표준사업장** 베어베터 방문 -

- **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** 및 **장애인 고용지원방안 발표** -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**10월 1일(수)** 오후 3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'베어베터'를 방문하여 **장애인 노동자,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**를 가졌다.

장애인 표준사업장은 **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편의시설 확충** 등의 법정 요건*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.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**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**로서 자리매김했다.(**'25년 6월 현재 822개소, 중증장애인 14,697명 고용**)

* **(인증 요건)**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, ②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 고용, ③ 중증장애인 5~15% 고용, ④ 최저임금 이상 지급,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

베어베터는 우수한 표준사업장 사례로 인쇄, 제과, 화환 제작, 배달 등의 발달장애 **적합 직무를 발굴**하고, **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.** 또한, **'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'**를 통해 일과 후 여가·체육활동 등 **장애인 노동자의 복지**를 **제공**하고 있다.

이번 간담회는 **노동부 장관**이 **장애인 노동자**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고, **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**하고 **기업의 고용 여력**을 높이기 위한 **정부 지원방안을 설명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한편, 고용노동부는 '24년 12월 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」 의결에 따라 **민간부문**의 **장애인 의무고용률***을 **'29년까지 3.5%**로 단계적으로 높이고, **공공부문**도 **4.0%**까지 올릴 계획이다. 이는 **정부의 국정과제**이기도 하다. '19년에 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」는 '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은 3.5%로, 공공부문은 3.8%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, **민간부문**은 공공부문과 달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**상향을 보류**한 바 있다.

* **(민간)** ('19) 3.1% → ('27) 3.3% → ('29) 3.5%
(공공) ('19) 3.4% → ('22) 3.6% → ('24) 3.8% → ('29) 4.0%

사업주의 원활한 의무고용이행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성장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「**장애인 고용지원 방안**」을 마련했다. 먼저, **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**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**규제를 완화**하고, **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**한다. 또한, 부담금과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도 추진한다.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**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**(月)은 **부담금 부과를 제외**한다. 또한, **연체금 부과방식**을 **월할에서 일할로 변경**하여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.

이와 함께, **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·훈련 지원**까지 세심히 뒷받침한다. **근로지원인**을 **확대**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, **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***, **최저임금 제외 인가자 일반 노동시장 전환지원****, **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 인상** 등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.

* 발달장애 특화 직무·기초소양 훈련 및 기업 자율적 디지털 훈련 대상 사업장 확대

**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성공 시,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 지급(첫 달 10만원, 둘째 달 20만원, 셋째 달 30만원)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"**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**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"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.

또한, "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**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**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밝혔다.

[붙임] 현장방문 개요
[별첨] 장애인고용 지원 방안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	책임자	과 장	고혜연 (044-202-7481)
		담당자	사무관	남덕렬 (044-202-7482)
			사무관	이보경 (044-202-74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	현장방문 개요

□ 개요

○ 일시 : ‘25. 10. 1.(수) 15:00～16:00

○ 장소 : ㈜베어베터* (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)

* 일반형 표준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 352명 중 장애인 근로자 283명(80.3%), 이중 발달은 98.9% (근로자 주요직무: 인쇄, 제과, 화환제작)

○ 주요 참석자

▲ (고용부) 장관, 통합고용정책국장, 장애인고용과장

▲ (공단) 이사장, 기업서비스국장

▲ (사업장) 대표, 장애인 근로자 등

▲ (전문가) 김라경 교수(가톨릭대 특수교육과)

□ 세부 계획(안)

※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간	주요 내용
15:00~15:10 (10′)	■ 영접 및 사전 환담(티타임) * 사업장 소개 (10분)
15:10~15:25 (15′)	■ 작업장 탐방
15:25~15:55 (30′)	■ 현장간담회(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) ① 장관 인사말씀 → ② 베어베터 대표 인사말씀 → ③자유토론
15:55~15:58 (3′)	■ 장관 마무리 말씀
15:58~16:00 (2′)	■ 기념 촬영